

2024년 가정, 노인사목 분과위원연수 강의록

<대구대교구 박삼용 세례자 요한 신부, 2월 17일(토), 교구청>

1. 전체 주제: 새로운 전망

1. 오늘날의 노인 떠오르는 것: 덜 희망적이고 부담스럽다.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65세 이상 노인 인구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통계청 자료 참고하였고, 자료만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 마산교구의 경우 우리나라 통계보다 65세 이상 비율이 훨씬 높은데, 본당 신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이다.

2. 노인이란 명칭: 老人

- 노인 (老人), 한자 그대로 늙은 사람이란 뜻으로, 예를 들어 광고를 보면 젊은 것이 좋고 나이 든 것은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미지들이 많고 나이가 들어서 멋있다는 광고는 없다. 무조건 젊고 빨라야 하고 힘이 세야 한다는 광고가 많아지면서 노인이란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
- ① 시니어: 연장자라는 뜻이지만, 외국어이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나 이 말이나 노인이나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다.
- ② 실버: 실버세대, 실버산업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버는 머리카락 색 때문에 쓰는 말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 차라리 실버보다는 은이 더 가볍게 다가오기에, 노인들의 그동안의 삶에 대한 품위를 잘 드러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③ 어르신: 이 용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르는 명칭으로 윗사람이 스스로 어르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기에 이것 또한 합당한 명칭은 아니며, 어감의 불편감으로 싫어하기도 한다.
- ④ 노년: 노인이 아니라 노년, 그 시기에 계신 분의 의미로 이러한 명칭은 어떠한가 싶다. 청소년, 청년, 중년과 같이 그 시기에 있는 분들이라는 의미로 노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일 거부감이 덜하고 조금 편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용하고 있다.

※ 그동안 살아오신 그 삶에 대한 품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 중이다. 이것이 그대로 표현된다면 나이 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언제부터 노인인가?

- 일반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으로 65세부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구의 어느 노년학회의 주제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였는데, 결론이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르기에 몇 세라고 규정할 수 없고,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노인으로 정리되었다. 스스로가 나도 이제 노인이 되었구나라고 느낄 때부터가 노인인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4. 언제부터 노인이 문제가 되었는가?

-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강조되던 효(孝)가 없어진 것이 대중교통 수단에 경로석을 만들면서부터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 칸이나 좌석의 끝, 구석으로 경로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노인들을 배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노인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 과거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을 부양했으나 지금은 나라에서 부양해야 한다고 인식들이 바뀌었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나라에서 부양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양에 따른 세금, 즉 노령 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기초노령연금이 1인당 30만 7,500원씩, 부부는 46만 1,250원씩 지급되고 있고 대중교통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데, 이 비용이 모두 국비 지원으로 나가고 있기에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다'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나라의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산인구(15세~64세)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므로 점점 노인이 문제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 해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노년 부양비라고 한다. 이 노년 부양비는 생산 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데, 2015년에는 100명당 17.5명이 점점 늘어나 올해는 100명당 27명이 되었다. 이 수치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2명이 1명을 부담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기에,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

5.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노년기 성격 특성의 변화

① 양면성을 지님

- 어떤 것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신체적 기능은 약화되지만 삶의 경험에 의한 지혜와 결정성 지능은 증가하는 것이다. 결정성 지능은 경험과 환경, 교육 등에 의해 습득한 능력 즉,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배경 지식이다. 결정성 지능의 반대는 유동성 지능으로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 시각보다는 청각에 의한 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을 잘 기억한다. 본당에서도 반복해서 들려 드리는 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쇠퇴와 성장: 여러 측면에서 실패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기에, 노년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쓸쓸한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부정과 긍정의 공존: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부정이지만 인생을 관조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급하게 움직이고 여유가 없었는데, 현재는 풍요롭고 여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② 우울증 경향

- 노년기 전반에 걸쳐 우울증의 증상이 증가하는데 원인은 신체적인 노화에 의한 질병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죽음에 대한 경험, 그리고 힘겨워지는 경제 사정 및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이다. 지난 세월에 대해 미처 다 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울증 경향을 가지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③ 내향성 및 수동성 증가

- 외부 사물이나 행동보다 내적인 측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능동성은 줄고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된다.

④ 경직성의 증가

- 말 그대로 융통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익숙한 습관적 태도와 방법을 고수하면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저하하게 된다. 이런 경직성의 증가로 문제 해결 방법이 옳지 않거나 이득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고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해지게 된다. 새로

운 것을 배우면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게 된다. 경직성의 증가는 마음이 굳어져 가기 때문인데, 이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이거 괜찮네’가 되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성 역할의 양성화

- 남성은 친밀성, 의존성, 관계 지향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여성은 공격성, 주장, 자기 중심성, 권위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일생의 억제되어 있던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인체의 변화 중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 평소 사용해 온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도 한다. 어떤 추억이 있는 물건이면서 편안한 물건이기에 이 부분은 인정 해드려야 한다. 물건이나 옷을 새로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임종 때, 평소 생활하시던 공간에서 임종하시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병원은 낯설기도 하고 스스로 세상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이 드는 등의 불안한 감정에 자녀들의 불안도 가중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계시다가 임종을 준비할 때라고 하면 평소 생활하시던 집으로 모셔서 마지막을 맞이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⑦ 조심성

- 정확성을 중시하며, 감각 능력이 감퇴하고 결정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변화나 새로운 것보다 확실한 것을 선호하기에 보수성을 지닌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가야 하기에 우선 내가 확실히 잘 알고 익숙한 곳을 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된다.

⑧ 과거에 대한 회상

- 과거 회상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기에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⑨ 유산 남기려는 경향

- 부모들은 부모이기에 그래도 자식한테 뭔가 해줘야지 하는 성향으로 평소 아껴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한다. 내가 부모라면 자식한테 무엇이랄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에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정체성은 부모로서 무엇인가를 자녀에게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 본당에서도 어르신들께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세대가 무엇이랄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시기에, 노인 세대만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와 함께 어울려야 한다. 예를 들어 본당 노인대학에서 주일학교 행사 때 간식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도 무엇을 해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런 요청을 통해서 ‘이제 다 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직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⑩ 의존성

-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사회적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이 증가한다. 노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방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닌 적당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전하는 상호 의존성이 필요하다.

6.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성공적인 노화

- 의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병 없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 구성 요소: 자기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개인 성장 등. 개인의 특성과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① 생물학적 영역

- 기본적인 일상적 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체적 활력을 보유하는 상태로 적어도 스스로 끼니를 챙길 수 있느냐는 중요하다. 가장 흔한 지표로 몸이 건강하나 그렇지 못하냐를 보게 되는데,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고 해서 실패한 노화는 아니다.

② 심리적인 영역

- 삶의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수용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환경적 요구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며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상태를 뜻하며, 자기 자신만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줄 수 있다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개방되어 있는 것도 이 영역이다.

③ 사회적인 영역

- 가족, 친구, 이웃과 사회적 접촉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것으로 은퇴 후 만날 사람이 있고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통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활동 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노인 일자리처럼 꼭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휴지 줍기 등과 같은 봉사활동도 생산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심리적인 영역에도 해당되며, 신체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 본당에서 노인사목 목표 설정, 평가 및 수정

1. 목적과 목표 구분

- 목적은 어떤 지향에 있어서 이르게 되는 마지막 단계를 뜻하며, 교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목의 목적은 복음화이다. 모든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은 복음화로서 노인 사목의 목적은 단순히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함이 아니다. 목적이 마지막 단계라면 목표는 목적에 이

르기 위한 중간 단계이다. 예를 들어 삶의 목적이 자기 구원의 완성이라면 이것에 이르기 위해 목표를 설정으로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 어떤 봉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지 하는 중간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지는 목표하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인생을 완성해야지 또는 구원받아야지가 목적인 것이다.

2. 목표 설정 단계

① 현실 분석: 문제점 또는 요구 사항

- 현실이 교회가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인식한 다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첫번째 단계이다.

② 목표 설정: 단기 → 중기 → 장기

-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를 먼저 설정한 다음, 이 목표를 향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시킬 것인가로 이어지게 된다.
- 예를 들어 노인대학에서 5월이니까 소풍가자 9월이니까 성지순례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보다 올해 우리가 추구하는 ‘노인대학의 목표가 무엇이다’ 라고 먼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올해 우리 본당 노인 사목의 목표는 ‘자발적으로 출선수범하는 노인들을 양성하자’로 정했으면, 노인들이 출선수범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하고, 체험도 하는 등의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로 이어지게 된다. 분명한 목표 설정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그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올해 안에 무엇을 해봅시다’나 ‘몇 년 계획으로 해봅시다’가 될 수 있다.

③ 실행: 실행하는 모든 것은 설정된 목표를 향하도록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만 좋은 평가도 할 수 있다.

④ 목표에 대한 완성도 평가: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평가

-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좋아했는지 안했는지가 아니라 처음 설정했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프로그램의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는지 등의 평가가 진행된다.

⑤ 실행 방향의 수정: 목표에 대한 수정이 없다면 방법적으로 수정

- 목표를 수정하거나, 목표는 수정하지 않고 실행 방법이 수정되었다면 그 방법을 통해 목표에 좀 더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실행 방향이 고평가 되었다면 실행 방향을 수정하면 된다.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던 원인을 찾았다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⑥ 목표에 대한 재평가

- 다시 한번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때 목표치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발전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3. 실습

- 스스로 노인 사목 혹은 가정 사목의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나눠보자.
- 그 목표를 향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떠할 것인지까지 나눠보자

3. 대구대교구 노인사목 프로그램 소개

1. 금빛 신문

- 기존의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가톨릭 금빛 신문에서 현재는 가정의 복음화를 꿈꾸는 가톨릭 금빛 신문으로 바뀌었다. 초반에는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계획했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작 기간과 다수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자서전이 아니라 신문을 만들기로 하였다.
- 목표: 노년의 품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들의 살아온 이야기, 평상시의 활동들과 방문하기에 좋은 공간을 소개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 신문에 그동안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노년들의 평상시의 활동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다. 살레시오 기자단을 창단하여 매달 모임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데, 직접 취재, 촬영, 기사 작성까지 하고 있다. 처음 기자단을 만들었을 때는 취재 요소가 있는데도 서로 미루셨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신문은 교회에 관한 것, 생태, 생명, 가족의 문화 등의 구성되고, 매달 1회씩 발행하고 있다.

2.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 대회

- 목표: 성가를 부르면서도 즐겁기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 처음에는 교구 노인의 날 오후 행사로 시작하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8번 진행하였다. 교구 노인의 날 행사는 교회가 노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합창 경연 대회만 실시하고 있다.
- 기존에는 참가 본당 15개, 10분씩 150분 + 창조 공연까지 3시간 소요 → 현재는 본당 10개, 10분씩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회 곡은 지정곡 1개, 자유곡으로 가톨릭 청소년 성가 중 1곡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주는 피아노와 원하는 다른 악기 1개까지 추가 가능하다. 심사는 음악 전공자 2명과 신부님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하는 모든 본당을 시상하되 상금의 차이는 있으며, 대회 개최와 관련된 안내는 2달 전에 실시하고 있다.

3.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 목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 초기 의도는 어르신들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것이었다. 토론 방식으로 나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로 풀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는 기도로 주제를 변경하여 노년에 계신 분들이 기도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들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실제로도 해보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 성경에 나오는 존경받을 만한 노년의 인물들을 중에서 토빛이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자선을 베풀면서 살아가기에 노년 피정 이름을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으로 정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피정이므로 일정 동안의 안전한 생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 ※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 이것을 왜 하는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면 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얼마만큼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 ※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것이 목표에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마무리

1. 요즘 노인 문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회에 노인이 많아서 문제라는 사고를 뒤집어 본다
면 어르신들이 많아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
 - 예를 들어 신임 교리교사 연수에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갔었다. 그중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 교리교사에 지원을 했지만,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사가 있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리교사는 하는가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차라리 본당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신앙심 깊은 어르신들을 교리교사로 양성을 해서 교리교육을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교회 안쪽에서 보면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다.
2.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시도록 두는 것.
 -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을 교회의 사회 교리 중 하나인 보조성의 원리라고 한다. 보조성의 원리는 더 큰 그룹에서 작은 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 즉, 작은 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그룹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애써 다른 세대와 분리하지 말고 함께 하실 기회 제공
 - 예전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을 모셨기에 3대, 4대가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렸는데 요즘은 자꾸 분리시키다 보니 세대 차이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본당에서도 세대 간의 교류가 있으면 세대가 더 풍성해지지 분리시킨다고 세대가 더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세대 간에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세대 간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함께 할 기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어 본당에서 어르신들은 꼭 대접받아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대접해야 한다 보다는 어르신들이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해 간식을 만들어 주기, 청년 미사에 어르신들이 성가 불러주기 등처럼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교회 안에서 자리 내어드리기
 - 교리 교사 양성도 사실 자리 만들어 드리기 중 하나로 어르신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권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 양성
 - 본당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섬김도 좋지만 존경받는 어른들의 양성도 필요한데, 젊은 세대에

대한 공부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존경받는 어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조부모에 대한 어떤 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세대에 대한 시각이 정해진다고들 한다. 좋은 조부모로부터 좋은 길을 배운 자녀들은 커서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라면 지금도 싫어할 수 있다.